

『한반도 비핵화를

위하여』

일본반핵법률가협회

총회 · 의견교환회

『朝鮮半島の非核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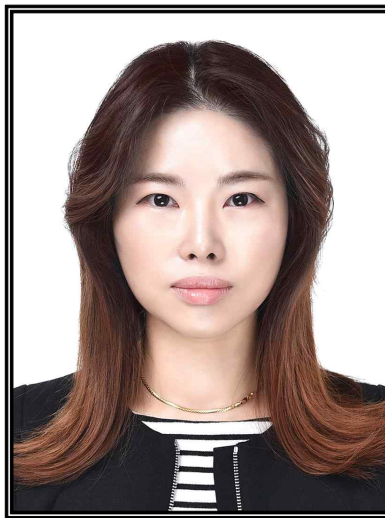
のために』

日本反核法律家協会總會

· 意見交換會

Chapter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한국 변호사 김낭희(金娘嬉, KIM NANGHEE)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최봉태 변호사님을 통해 이번 의견교환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김낭희
변호사 김낭희

저의 역할은 ‘한반도 비핵화’ 의견교환에 필요한 한국 상황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각자의 과제에 더욱 접근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Chapter I. 序説

始めまして。 韓国の弁護士キム・ナンヒ(KIM NANGHEE)と申します。 現在、大韓弁護士協会の日帝被害者人権特別委員会委員を務めながら、長い間活発に活動していた弁護士チェ・ボンテ先生を通じて今回の意見交換会のこと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と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

今日の私は「朝鮮半島の非核化」に関する意見交換に欠かせない韓国の状況の過去と現在についてお話しすることで、相互の理解と各国の課題にもっとアプローチ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願っております。

Chapter II. 한국 사회의 관심도

여기 계신 분들의 열의와 저의 기대와는 무관하게, 현재 한국에서의 핵 관련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 관심의 정도를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탓에 ‘인식’이라는 표현을 쓸만한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역사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 여전히 진행 중인 북한의 핵 개발, 가변적인 한일관계 등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이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관련 소송이 각국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심 가지는 사람은 기사 필요한 기자와 사건이 필요한 변호사 정도입니다.

이런 배경지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가 더 명확해질 것이란 설명도 드립니다.

Chapter II. 韓国社会の関心

ここにいらっしゃる方々の熱意と私の期待とは関係なく、現在の韓国での核に関する歴史への認識は、まず韓国社会がどれ位の関心をもっているのかを言及せざるを得ません。

結論から申し上げますと、社会全般に関心が低くなったため「認識」という表現を使うほどのデータがあまりありません。

過去の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の歴史やアメリカの原子爆弾投下、依然として進行中の北朝鮮の核開発、予想できない日韓関係などはもはや韓国社会で日常的な話題には分類されません。

関連訴訟が各国で行われるとしても、関心を持つ人は記事が必要な記者と事件が必要な弁護士位です。

こうした背景知識を先に申しあげることで、今後の課題がより明確になるだろうと思います。

Chapter III.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원폭 투하(미국), 핵 개발(북한), 일제강점기(일본)에 관한 인식

우선 한국은 원자폭탄 투하의 행위자와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원자폭탄 투하에 관한 역사적 분석이나 기술적 연구, 국가적 의견 표명 및 국가 차원의 요구 등이 뚜렷하게 목격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원폭 투하의 영향, 결과,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 피폭자들에 관한 관심조차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 피폭자나 그 유가족들은 연대할 수 있는 그룹을 한국 사회 밖에서 찾고 있고, 실제로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의 피해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 그들의 입장이 한국 사회의 입장이라고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Chapter III. 現在の韓国社会における原爆投下[米国]、核開発[北朝鮮]、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日本]に関する認識

まず、韓国は原子爆弾投下の行為者や対象者ではないためか、積極的に原子爆弾投下に関する歴史的な分析や技術的研究、国家的意見表明や国家レベルの要求などがはっきりと目撃されることはありません。

さらに原爆投下の影響、結果、副作用とも言える韓国人被爆者に関する関心すら微々たるのが実情です。

そのため、韓国人被爆者やその遺族は連帯できるグループを韓国社会の外から探しており、実際に日本やアジア諸国の被害者、市民団体などと一緒に動いているため、彼らの立場が韓国社会の立場とは見難い現実です。

한편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낮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 납치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이슈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피해 대상이 된 경험이 적다고 여겨서인지 북한을 연구해야 할 정도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도 실재하는 기억이 아닌 이미 지나간 역사 속 교훈으로, 그 인식의 위치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으로 일제강점기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우고 기억하겠다는 피해자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역사적 패권 국가를 지향할 때 택해서는 안 되는 실수, 교훈, 본보기로서 일제강점기 역사를 인식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一方、核開発を止めていない北朝鮮に対しても関心は低いです。日本では「北朝鮮拉致問題」がなお社会的な話題ですが、相対的に韓国国民が直接で表面的な被害対象となった経験が少ないとしてか、北朝鮮を研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の脅威だと考える雰囲気ではありません。

また、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の歴史についても実在する記憶ではなく、すでに過ぎ去った歴史の中の教訓へと、その認識の位置が移りつつあります。

時間が経つにつれ、韓国社会はもはや当事者ではなく第三者の立場で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の歴史を眺めるようになり、そうするうちに問題が解決するまで戦って記憶するという被害者のような姿勢ではなく、歴史的覇権国家を目指す際に選んではならないミス、教訓、手本として日本による植民地時代の歴史を認識する方向に進んでいます。

Chapter IV.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요구되는 것들

따라서 이번 의견교환회의 주제가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한국 사회에는 우선 비핵화를 왜 해야 하는지, 비핵화로 어떤 실익이 있는지, 비핵화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계기는 개인이나 작은 단체가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가 정도의 조직이 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 속에서 등장한 핵이고, 역사 속 행위자는 국가인 데다, 핵에 의한 가해와 피해는 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정부에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거나 한중일 간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기보다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내 일일 수 있다는 일상적 인식, 친근한 접근, 간편한 계기(숏폼 등을 활용하여 SNS상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와 캠페인이 접목된 새로운 시도)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Chapter IV. 韓半島非核化のために要求されるもの

そのため、今回の意見交換会のテーマが朝鮮半島の非核化ですので、韓国社会にはまず非核化をなぜ行うべきか、非核化でどのような利益があるのか、非核化が私と何の関係があるのかを認識させるきっかけが必要だと思います。

そのきっかけは個人や小さな団体が作るには力不足です。国レベルの組織が出てこそ可能です。それもそのはず、歴史の中で登場した核であり、歴史の中の行為者は国家であるうえ、核による加害と被害は大規模だからです。

個人的には朝鮮半島の非核化に向けて政府で別の組織を新設したり、日中韓の別の通路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よりは、国民一人一人が自分のことかもしれないという日常的な認識、親しみやすいアクセス、手軽なきっかけ(ショートフォームなどを活用してSNS上での自発的な参加を誘導するイベントやキャンペーンが融合した新たな試み)も政府レベルで可能だという発想の転換にアプローチしてみてもいいかがでしょうか?と発表を終わります。